

오른손을 몹시 떠는 할아버지 한 분이 진료실을 방문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몇 년 전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4~5개월 전부터는 급격히 심해져 감당 못할 정도라고 하소연하셨다.

더불어 항상 마음이 불안하여 무엇에 쫓기는 듯 편치 못하고 꿈도 많아 깊은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한다. 특히 근래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도 심해져서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셨다.

손은 왜 떠는 것일까? 이 병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것일까?

생로병사가 바로 인생이듯이 병도 우리 몸에서 발생해야 할 필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병이 발생함으로써 균형이 깨어진 신체가 그나마 생명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놀라거나 당황했을 때, 혹은 신경을 많이 쓰고 마음이 불안해 졌을 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몽롱해지며 말을 더듬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손이 떨리는 경우를 흔히 경험할 수 있다.

또 주위에서 흔히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될 때 다리를 떨고 손가락을 까딱거림으로써 긴장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흥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안정되면 바로 소실되는 이러한 일상 속의 손떨림-수진

한방으로 보는 성인병

마음의 병

심허수진 (心虛手振)



이진화
부평한방병원장

(手振), 수전(手顫)의 관찰을 통해 한방에서는 심장의 허함(심허증·心虛證)이 수전증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였다.

심장은 오장육부(五臟六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군주지관(君主之官)으로 나머지 장부를 총괄하는 임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심장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혈(血)과 혈액(血脈)을 주관함으로써 전신에 혈액을 원활히 공급하여 조직을 자양하는 원동력이 된다. 심장의 이러한 기능을 가리켜서 혈육지심(血肉之心)이라고 한다.

둘째, 감정, 사유활동 등 정신활동을 수행한다. 심장의 심이란 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감정의 주체가 심장 즉,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는 것도 심장이 사유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심장의 이러한 기능을 가리켜서神明지심(神明之心)이라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여 보지 않고 이를 몸이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발현하는 양면적 현상으로 해석하는 일원

론적 관점을 갖고 있다.

심장 역시 이러한 관련에 근거하여 양방면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며 심장에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정신과 육체 양방면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동의보감에서는 “심장에 병이 있으면 사람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어지럽고 잘 넘어지며 조금만 과로하거나 감정이 격해지면 얼굴이 붉어지며 평소 얼굴에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얼굴이 별장다.

괜히 실실 잘 웃고 마음이 답답하고 심장부위에 통증을 느끼며 숨이 차고 가슴땀, 불안함, 건망증 등이 일어난다.

이는 모두 심장의 피(심혈心血)가 손상되어 신(神)이 심장에 편안하게 저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혈육지심(血肉之心)과神明지심(神明之心)을 망라해서 심장에 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정신과 육체 양방면의 증후를 명시하였다.

특히 ‘심허수진(心虛手振)’ 조문을 따로 두어 심장의 손상으로 손떨림이 발생됨을 명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할아버지의 경우 양방병원에서 파킨슨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파킨슨씨병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결핍 내지는 도파민 수용체의 수용성 부족으로 발병된다고 여겨진다.

이 병은 진전(떨림), 경직 및 운동완만 등의 특징적 증상을 나타내는데 진전은 휴식 중에 흔히 나타나며(안정시 진전) 움직임에 의해 경감되고 수면 중에 소실되는 특성이 있다.

정신을 집중해서 행동하면 진전이 덜 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병이 진행되면 경직이 심해져서 앞으로 꾸부정한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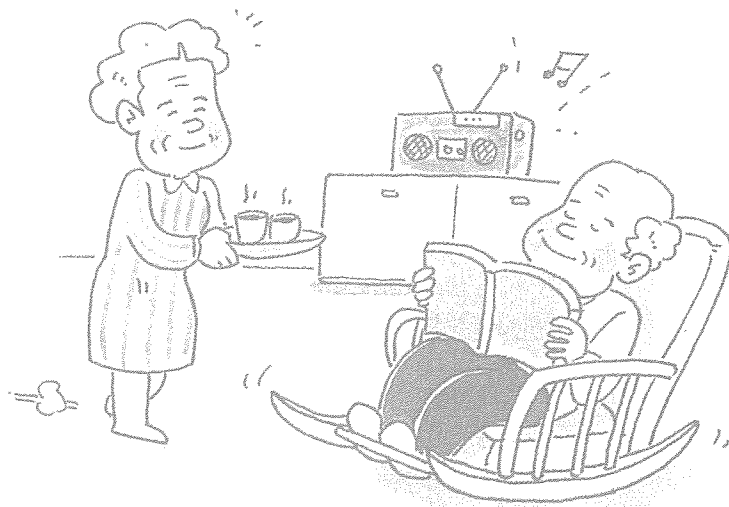
곡성 체위를 보이며, 운동이 완만해져서 안면근육의 둔화(가면양 얼굴), 발음장애, 연하장애, 보행장애, 보행시 팔의 움직임 감소 등의 증세를 보인다.

한의학에서는 질병 자체보다는 전신에서 발현되는 증상, 증후 및 정서의 변화를 종합하여 손떨림을 심허수진(心虛手振), 간풍수진(肝風手振), 기허수진(氣虛手振), 혈허수진(血虛手振), 주가수진(酒家手振) 등 몇 종류의 변증 유형으로 구별한다.

이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심허수진(心虛手振)에 해당되었으며 특히 심혈허증(心血虛證)에 해당되어 이를 치료하는 가감귀비탕(加減歸脾湯)이라는 한약과 심정격(心正格) 침법을 사용하여 많은 호전이 있었다.

손떨림의 경감과 함께 항상 쫓아다니던 불안증이 없어지고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어 좋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모두 심장의 허함을 치료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얻어진 성과이다.

한의학의 치료대상은 추상적인 병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자체이다.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만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문제점과 일반적 생리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몸 안에서 상호간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유기적으로 밝혀내어 전신의 부조화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한방치료이다.

정신과 육체가 둘이 아니고 바로 몸이 발현하는 양면적 현상일 뿐이라는 심신일여(心身一如)의 관점에서 손떨림의 치료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양방진단명이 다르더라도 한의학적으로 같은 병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방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질환이지만 한의학적으로 동일한 범주에서 치료할 수 있다.

양방병원에서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단 받은 20대 초반의 아기사를 한의학적으로 심허수진(心虛手振)으로 진단하여 성공적으로 치료된 사례를 소개하겠다.

맥은 부삭하고 갑상선이 커져 있으며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차고 상복부에 동계(動悸·심장의 고동이 보통 때보다 심하여 가슴이 울렁거림)가 있다. 피로하고 작열감이 있고 갈증이 있으며 대변과 생리는 정상이다.

안구돌출은 나타나지 않으며 손끝의 떨림이 있다. 갑상선 질환이라는 병명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의 불안함과 심장의 두근거림 및 손떨림에 초점을 맞춰 심허증(心虛證)에 의한 심계항진, 손떨림으로 진단했다.

심허증(心虛證)은 다시 심

혈허증(心血虛證)과 심기허증(心氣虛證)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환자는 무기력하고 몸이 차며 추위를 싫어하며 살결이 부드럽고 촉촉한 것으로 미루어 심기허증(心氣虛證)으로 판단했다.

심기허로 인한 심계항진에 많이 쓰는 처방인 자감초탕(菴甘草湯)을 투여한 결과 1개월쯤의 복용으로 갑상선 증대도 많이 줄어들고 가슴땀, 불안함, 손떨림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파킨슨씨병, 갑상선 질환 뿐만이 아닐 것이다. 손떨림, 불안함 뿐만이 아닐 것이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받게되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나 지나치게 긴장을 많이 하는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심장이 부담을 받아서 발생하는 질병, 증후는 어지러움증, 기억력감퇴, 가슴땀, 흉통, 불안신경증, 환병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심장의 병증은 어쩌면 현대인들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인지도 모르겠다.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받으면서 스스로 여유있고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들 질병, 증후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7]